

“후배들 좋은 환경서 공부할 수 있게”

전북대 간호대 대학원생들 4520만원 기탁

“후배들을 위한 우리 간호대학만의 아름다운 기부 전통이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간호대 석·박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33명의 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에 써달라며 4520만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21일 전했다.

이들은 모두 학업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대학원생이기에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녹록치만은 않았지만, 전북대 간호대의 위상을 잇고,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땀을 흘렸다.

간호대 대학원생들이 장학기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벌써 4년째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47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54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전북대 간호대 석·박사 과정 대표인 김혁준·정다은씨를 중심으로 대학원생들은 심시일반 기금 조성에도 나섰다. 이 같은 학생들의 뜻에 교수들 또한 매년 힘을 보태며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조성’이라는 전북대 간호대만의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김혁준 석·박사과정 대표 학생은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후배들에게 좋은 교육



전북대학교 간호대 석·박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33명의 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에 써달라며 4,520만 원을 기탁했다.

환경을 물려주고, 전북대 간호대만의 전통을 이어 나가기 위해 마음을 모으게 됐다”며, “후배들이 또 다른 후배들에게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진안군,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추진

진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를 추진한다.



최근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과 김석기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이 원도의 진안군 6.25참전유공자회장의 자택을 방문하여 명패를 달아드렸다. 이를 시작으로, 진안군 11개 읍·면 총 347명의 국가유공자의 집에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는 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의미를 담아 추진 중으로 올 연말까지 독립유공자, 6.25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상인군경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월남 참전유공자와 그 밖의 국가유공자는 2020년에 달아드릴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 새마을회, 생명살림운동 영농형 태양광발전 우수시설 견학

새마을지도자

전북도협의회

(회장 방석혁),

전북도새마을부

녀회(회장 김선

희) 시군 회장

단 30명은 21일

고창 상하면을

찾아, 태양광발전과

유기농업을 병행하여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하는

일거양득의 영농형

태양광발전 우수시설

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활용 방안과

범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새마을중앙회는 “화석연료

대량소비체제와 대량생산-소비-폐기의 문명

으로 하나뿐인 지구가

생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실천하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생명의

삶터를 지켜 내야한다.”

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김제 광활면, 고령 영세농가 중심 농촌일손돕기

김제 광활면은 신라마을 농가를 방문하여 모판 나르기 및 모 심기 등 고령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농업의 상당 부분이 기계화 되어 노동력이 절감되었다고는 하지만 모판 나르기 등 기초적인 작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람이 손길이 필요하다. 이에 농번기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농가에 적기영농을 위한 지원활동을 위해 일손 돕기가 추진되었다.

일모작보다 모내기가 늦어지는 이모작의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모내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늦어도 7월 상순까지는 모내기를 마쳐야 한다. 광활면은 이모작을 하는 농가가 대부분으로 보리 수확으로 늦은 농가 일부가 모내기 작업을 하고 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을 받은 영농민은 “일손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영농활동을 지원해 차질없이 한해 농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비전대 진안서 재능기부 봉사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전기과, 미용건강과 학생들이 합동으로 농촌 지역의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을 위해 재능기부 나눔운동에 나섰다. 지난 21일 밝혔다. 이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북도회 장안읍 부회장을 비롯한 직원 7명과, 전주비전대학교 전기과 김창현 학과장을 비롯한 학생 및 교수 23명, 미용건강과 김은영 교수와 학생 19명 등 총 60여명은 진안 가마리 농촌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주비전대학교 전기과 봉사팀은 30여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콘센트 추가설치, 두꺼비집 점검을 했다. 특히 우물증 예방을 위해 전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했다. 또한 미용건강과에서는 피부관리, 이미용, 마사지 등의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장안읍 부회장은 “계속되는 무더위에 각 가정마다 전기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웃들이 안전사고 걱정없이 여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창현 학과장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농촌마을 어르신들이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겪지 않도록 매년 지역 내 이웃들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9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주)전주매일	(주)전주매일
발행·편집인 조보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용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8-6874	남원지사 602-389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8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64
요지지사 010-9845-9855	팔복지사 253-6984	남원지사 602-3896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20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8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해독 프로그램 전문